

최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 스토리텔링 양상과 의미

조 미 숙*

차 례

- | | |
|----------------------------------|-------------------------|
| 1. 서론 : 최정희와 서울 | 3. 결론 : 소설 속 서울 공간의 활용과 |
| 2. 최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
스토리텔링 양상 | 그 의미 |

국문초록

서울은 식민지 도시 '경성'의 구획이나 공간 배치와 일정한 연속성으로써 학자들의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일제 강점기 서울을 장소로 한 문학 연구는 장소 기억의 의미와 함께 강점 하 조선인의 주체적 삶의 반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여성 문인에게 내려진 성적 차별과 상징폭력 속에서 여성 작가, 특별히 비서울 출신 여성 작가에게 강점기 서울은 특별한 장소감을 주는 곳이었다. 안정된 공간, 휴식처로서의 묘사보다는 낯선 곳, 무서운 곳, 어두운 곳이라는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여성 작가 최정희는 일제 강점,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교수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가족, 이데올로기, 인생문제, 노년기의 관조적 삶과 죽음의 철학까지 다룬, 한국 문단 대표적 인물이다. 최정희는 서울의 여러 장소를 무대로 공간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최정희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 스토리텔링 양상을 통해 작가가 갖는 강점기 서울 장소감을 규명한다. 최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은 첫째, 서울은 복잡하지만 그리운 곳 등 복합감정이 다소 피상적으로 그려진다. 둘째, 서울은 다양성이 포착되는 곳이지만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그려진다. 셋째, 거주자로서 느끼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감이 묘사된다. 넷째, 산책이나 이동 공간으로서의 서울 묘사를 보인다. 최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은 전 세대 여성 작가들보다 확대되어 있으며 구체적, 현실적,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최정희가 가졌던 사상, 기자라는 직업, 긴 서울 주거 기간, 가족 부양의 책임감 등이라고 보인다.

주제어 : 최정희, 여성 작가, 서울, 스토리텔링, 장소, 장소성

1. 서론 : 최정희와 서울

서사양식에서 인물이 생활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문학 작품들은 그 장소에 특정한 장소성까지 부여하게 된다.¹⁾ 여기에서 ‘장소성’이란, 인간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하는 장소의 정체성을 의미한다.²⁾ 장소성에는 장소의 분위기, 장소의 정신과 함께 장소감이 포함된다.³⁾ 장

1) 최근 장소성 부각은 문화산업과 관련되면서 각광을 받는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뉴욕의 가을> 등 외화와 <밀양>, <곡성>, <부산행>, <해운대>, <곤지암> 등 한국영화에서도 장소와 관련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2)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29-31쪽.

소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 넣어 현재에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갖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재생산함으로써, 단순히 물리적·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인간의 실천과 밀접하게 된다.⁴⁾ 인간의 기억은 장소-지향적, 장소-기반적 성향이 있는데, 장소 자체 물질성과 그 위에 조성된 경관이 공적 기억을 각인시켜 장소 그 자체가 “우리 기억의 주어”가 되기 때문이다.⁵⁾

장소로서 한국의 서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한양을 이어받은 수도로서의 역사성이다.⁶⁾ 서울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적 대표적 공간이었고 궁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진 공간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은 지속적인 변화의 공간이었다. 이른바 ‘성저십리’로 시작된 서울의 영역과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문화적으로도 중심지였다. 중심지로서 서울은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의 공간, 사교의 장 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표 공간이었기에 공격의 대상이기도 했다. 수많은 외침 속에 중요한 유산들이 훼손되기도 했다. 일제를 거치면서는 고의적인 장소성 변화를 겪기도 하였고,⁷⁾ 전통 훼손 속

-
- 3) 렐프에 의하면 장소의 정신, 장소의 분위기와 함께 장소성의 특징 중 하나가 되는 ‘장소감’이란 인간이 장소를 자각하고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이다. 그는 개 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내용보다 현대 인간들의 장소경험의 일반적 특성을 추리면서, 진정한 장소감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본다(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43-148쪽). 장소감은 개인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다양한 감정의 기반이다(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77-181쪽).
 - 4)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112쪽.
 - 5) 전종한,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 『대한지리학회지』 48(3), 대한지리학회, 2013, 440쪽.
 - 6) ‘서울’은 1394년(태조 3)에 조선의 도읍이 된 ‘한양’ 이후 지속된 수도이다. 1895년(고종 32)에 전국이 23부제가 되면서 한성부 한성군, 1896년(건양 1)에는 13도제가 되면서 경기도 한성부로, 일제 강점 이후 경성부로 개칭되었다.(김기혁 외 18인,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12.)
 - 7) 조미숙, 『강점기 여성 작가의 ‘서울’ 스토리텔링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

에 ‘비장소’ 경험도 겪어야 했다.⁸⁾ 서울은 식민지 도시 ‘경성’의 구획이나 공간 배치에 일정한 연속성을 띠므로써 학자들의 지속적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⁹⁾ 식민지 도시 ‘경성’을 ‘장소화’한 자본주의적 작동 원리가 현재 서울에도 여전하다는 것은 문제의식¹⁰⁾인 동시에 과거 기억의 소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보인다. 장소의 장소적 성격과 그 중층성은 현대 자본주의 도시 속에서도 다양하고 두꺼운 의미의 장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우리 삶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¹¹⁾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관련한 장소 서울의 연구¹²⁾들이 의미를 갖는다. 소설 속 서울의 모습을 주목한 연구도 다양하

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12, 77-79쪽. 이 글은 이 후속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장소성 연구의 중요성은 조정구의 “삶의 형상”에서도 참고(『서울 골목길은 ‘깊고 넓었다’』, 『경향신문』, 2010.01.12.).

8) 여기에서 ‘비장소’란 오제의 개념으로 전통성을 부정한 채 텍스트에 의한 공간에의 침투, 단일한 정체성, 일시적인 계약관계 등의 의미를 갖는 이정표의 거리, 백화점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정현목, 앞의 글, 117-121쪽). 창경궁의 동물원화 등 전통성 부정은 비장소가 될 수 있다.

9)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으로 시작되어 동대문구, 성동구와 마포구가 포함되면서 광복 전 경성은 8개 구로 되어 있었는데, 몇 개구가 분화되었을 뿐, 기본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변화』,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강점기 편중된 발전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일본인들이 살던 남대문로와 을지로, 충무로 일대에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지점(1906년)이 생겼고 1920년대 죠지아 백화점, 미나카이백화점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이 부근은 서양식 건물을 건설하고 1910년대에 가로등이 켜질 정도로 전기 사용이 일상화 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 개발에서 소외된 북촌 비롯 많은 서울 지역에서 1930년대까지 호롱불과 장작이 취사 난방 도구였음을 볼 수 있다.

http://www.seoul.go.kr/v2012/seoul/review/general/seoul_history.html

10) 김춘식,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0, 60-61쪽.

11) 종로의 피맛골이라는 뒷골목을 중심으로 중심업무지구라는 단일 색깔로 채색된 종로 일대를 이른바 ‘결을 거스르는 독해’를 통해 해체하고, 도시가 지닌 공간성의 또 다른 일면을 분석한 전중환(『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대한지리학회지』 44(6), 대한지리학회, 2009, 779-796쪽)의 연구가 그 예이다.

12) 김미선, 『1950-1960년대 여성의 소비문화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46, 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2, 59-101쪽; 홍정욱, 『명동 역사 속 문화

게 시도된다.¹³⁾ 최근 서울의 다양한 장소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문학에 나타난 장소성에 관한 감성적인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¹⁴⁾ 일제 강점기 서울을 장소로 한 문학 연구의 의미는 장소 기억의 의미, 강점 하 조선인의 척박하지만 주체적이고자 노력한 삶의 반추, 재조명 등의 의미가 있다.

문학에 나타난 서울의 공간 스토리텔링 연구에 빼 수 없는 작가 중 하나가 최정희이다. 최정희의 작품에는 다양한 서울 공간 스토리텔링이 나타난다.¹⁵⁾ 강점기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창작활동을 한 드문 작가

적 재구성』, 『글로벌문화콘텐츠』 27,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147-165쪽. 특히 홍정옥은 명동의 공간적 변화와 문화적 변천을 마카오 신사복과 맞춤 양장점들이 즐비했던 패션의 본고장이라 칭하던 광복 이후의 명동, 대한민국 문화와 예술의 중흥기였던 1950-1960년대, 청년문화의 요람이었던 1970년대. 글로벌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현재 등 사회문화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13) 『서울학연구』의 업적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조명기는 서울이라는 테마의 단편 소설집을 대상으로 서울의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이 로컬이라는 장에서 구체화, 접맥, 충돌하는 양상을 살폈다.('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두 변증법', 『어문론집』 50, 중앙어문학회, 2012, 451-478쪽.)
- 14) 예로써 우리나라 소설 중 가장 많이 문학에 등장하는 서울 도심 문학 공간의 장소 의미 연구를 위해 광고와 광화문동, 화신상회, 전차, 경성역, 카페, 다방, 경성부청과 대한문, 종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빨래터, 천변, 기미꼬의 집(<천변풍경>, 경성법원과 경운궁, 이화학당과 러시아공사관, 경구장과 교남동, 정동의 신작로(<애욕>) 등의 장소에서 인물의 행동을 통하여 멜랑콜리, 우울함 등을 표현하는 장소의 1차적, 2차적 의미를 찾는 연구(변찬복, 『박태원 문학공간의 미학적 해석』, 『글로벌문화콘텐츠』 2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113-114쪽)도 있다. 그 외에 권윤구·임승빈, 『장소성 측정 형용사를 통한 서울시 대표 장소의 장소성 유형 분류』(『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3),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135-150쪽.)에서는 서울의 장소성 높은 곳 즉 가로수길, 강남역 등 41곳의 장소를 대상으로 '개성적인', '매력적인', '유일한', '의미 있는' 등의 장소성을 구축·분류했다.
- 15) 여기에서 '공간 스토리텔링'이란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감성 중심 문화, 체험 장소에 대한 수요 등의 복합적 동인으로 만들어진 개념(김세익·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과 인문건축』,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21쪽)으로 공간에 인문학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작업, 곧 공간을 인간의 의미로 전환하고 장소화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말한다. 이는 "부유하는 공간을 인간의 인식 속

중 하나인 최정희는 작품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문학사상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데,¹⁶⁾ 특히 격변기 서울의 변화를 작품에 담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작가 최정희에게 서울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나이를 6살이나 속이면서까지 편입해야 했던 공간이었고¹⁷⁾ 1931년부터 시작한 기자 생활¹⁸⁾ 이후 여러 매체 글쓰기를 하는 등 직업을 갖게 한 공간이었다. 보육학교 졸업 후 잠시 일본에 이직했을 때를 제외하면 김유영과의 불행한 결혼, 출산, 사별, 김동환과의 재혼 등 굴곡의 역사를 서울과 그 근교에서 살아내었던 것이다. 최정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우선 최정희 소설 전반적 경향을 다루는 것들이 있다.¹⁹⁾ 특별히 최정희 문학의 친일성이나 여성주의에 집중하는 연구,²⁰⁾ 여성 작가로서의 특징에 주목하는 경우,²¹⁾ 작중 인물의 특성에 집중하는 연

에 가두어 기억의 재생장소로 기여”하는 작업으로 그 대상은 특정 지역, 곧 인간의 거주지, 즉 ‘지역’ 단위가 기본이다(김영순,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19, 인문콘텐츠학회, 2010, 37쪽).

- 16) 황수남,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구원’의 상상』, 『한국문학논총』 27집, 한국문학학회, 2000, 325-327쪽.
- 17) 최정희는 함경북도에서 보통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숙명여고보에 편입할 때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나이를 줄였다(서정자, 『일제 강점기 한국 여류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8, 93쪽). 조선문단에 ‘여류문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2기 여성문인 최정희는 1931년에 수필로 데뷔한 이래, 꾸준한 창작력을 보인 당대 드문 여성 작가이다.
- 18) 1931년 최정희는, 1929년 6월 12일 자로 창간되어 14년간 152호가 발간된 대중 잡지 『삼천리』(판권장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 김동환, 인쇄인 심우택)의 기자가 되어 들어간다. 삼천리사는 돈의동 74번지에 있었다.
- 19) 정영자, 『최정희 소설 연구-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122, 문예운동사, 2014, 42-57쪽; 편집부, 『최정희의 문학과 생애』, 같은 책, 16-34쪽; 황수남, 『최정희 작품론』, 같은 책, 58-70쪽.
- 20) 이영이는 <천맥>이 여성과 아동 모두 ‘국민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제말기 여성을 국민총력전의 주체로 호명하여 전쟁 동원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이바지하는 작품으로 친일문학의 길항지점에 있다고 하였다(『최정희의 <천맥>에 나타난 ‘국민’ 형성 과정』,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3, 639-659쪽). 최정희의 모성 강조 친일문학은 『기획 발굴-최정희의 친일문학 작품』(『실천문학』 73, 실천문학사, 2004, 194-226쪽)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구²²⁾ 등도 있다. 최정희 작품 분류는 일제 치하 현실인식기, 광복 후 농촌문제에의 관심기, 전쟁 후 피해적 삶 형상화 시기, 이후 인간 본질 문제로 전환 등 네 시기로 구분되는 것이 보편적이다.²³⁾ 이병순은 최정희가 보인 일제 강점기의 경향성, 모성에의 관심, 광복기의 좌익 이념, 이후 낭만적 사랑에의 천착 등의 작품 경향은 당시 문단의 추이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당대 시대정신 읽기가 최정희 작품의 근간이었다고 하였다.²⁴⁾ 한편 최정희 작품은 장소로써 크게 이분되는 경향이 있다. <낙동강>, <산제>, <봉황녀>, <풍류잡히는 마을> 등²⁵⁾처럼 시골을 배경으

-
- 21) 김경원, 『역사적 격랑 속에서 여성의 좌표 찾기』, 『역사비평』 36, 역사비평연구소, 1996, 253-275쪽;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 『한국근대문학연구』 7(1), 한국근대문학회, 2006, 93-120쪽; 심진경, 『‘모성’의 탄생-최정희의 <지맥>, <인맥>, <천맥>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415-435쪽; 손유경, 『‘여류’의 교류』,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회, 2017, 385-419쪽; 손성준, 『‘여류’ 앤솔로지의 다시쓰기, 그 이중의 검열회로』, 『코기토』 81,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7, 160-201쪽.
- 22) 임금복,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연구』, 『돈암어문학』 4, 돈암어문학회, 1991, 207-233쪽; 방민호, 『1930년대 후반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0, 현대소설학회, 2006, 61-91쪽; 장미경·김순전, 『최정희 일본어 소설에 나타난 ‘여성 지식인’ 고찰』, 『일본어문학』 42, 한국일본어학회, 2009, 173-193쪽; 최정아, 『최정희의 <녹색의 문>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탐구 양상』, 『현대소설연구』 44, 현대소설학회, 2010, 435-461쪽.
- 23) 최정희 작품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젊은 시절에는 여성의 인간화 구현, 후반기 이후 역사와 사회, 인간과 실존의 문제를 다룬다고 보기도(황수남, 앞의 글, 68쪽) 하지만 네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①1931년에서 1934년-습작기, 동반자적 경향 ②전주사건으로 옥고 치른 후 문학관에 변화, 여성 문제 천착, ③광복 이후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형상화 ④전후에는 일상사 혹은 신변체험을 중심으로 둠(권영민, 임순애 등). 1930년대, 일제 말기, 광복 전후, 전쟁 이후 등 4기로 구분되기도 한다(박죽심, 『최정희 문학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10, 15-21쪽). 광복 전후와 전쟁기를 묶어 세 시기로 보기도 한다.
- 24)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현대소설연구』 26, 현대소설학회, 2005, 131-149쪽.
- 25) 당시 장혁주가 책상에 앉아 쓴 것이 아닌, 현장성과 치밀한 묘사, 리얼리즘 작이라 평가하였던 최정희의 <낙동강>은 정쇠와 남이 가족을 중심으로 수재민의 이품을 그린 것으로 최정희가 동생 이름을 빌어 발표한 작품이라고 밝혀진 바

로 하층민의 삶을 다루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홍가>, <천 맥>에서처럼 도회, 주로 서울 배경의 자전적 성향의 작품들이다. 이 글에서는 최정희의 초기 작품 중, 서울을 무대로 한 작품들에 나타난 서울 공간 스토리텔링 양상을 고찰하겠다.

2. 최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울 스토리텔링 양상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서울 스토리텔링이란 작가가 서울을 생각하는 감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작가가 서울을 어떠한 의미로 전환하고 장소화하여 특정 기억을 재생하게끔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기억의 주어”가 되게끔 서울이라는 특정 공간을 선택하는 문제는 서울에 대한 작가의 체험과 해석이 전제된다.

여기에서는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서울을, 명칭만 등장시키는 경우, 외부자로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 거주자로서 정착공간을 바라보는 시선, 거주 공간만이 아닌 거리에 대한 관찰 등으로 분류하여 장소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작가가 차츰 구체적 삶의 공간으로 서울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1) 명칭으로서의 서울 - 피상적 대상

최정희 초창기 작품에서 ‘서울’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경우, 서울은 멀고 복잡한 곳이면서도 동경, 추억의 장소, 그리고 살고 싶은 장소 등 다양하게 이야기된다.

있다. <산재>는 1925년 현진건이 발표한 <불>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쫓간이 당하는 성적 학대와 그 복수를 다룬다. <풍류 잡히는 마을>은 광복이 되었어도 지주와 소작의 착취-피착취 관계가 지속되는 사회적 부조리를 다룬다.

잡음의 「심포니」가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도시—서울의 밤은
깊히 젖습니다. (<정당한 스파이>, 118쪽)²⁶⁾

동무는 다시 말이 없고… 경성행 열차가 꺼먼 연기를 뿜으며 들어당
왔다. 어느 때 어디서나 그렇지만 차가 닿자 여러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
게들, 차에 올랐다. (<지맥>, 41쪽)²⁷⁾

습작으로 분류되는²⁸⁾ <정당한 스파이>에서부터 최정희는 당대 다른
작가들과 달리 '경성'이 아니고 '서울'이라 표기한다.²⁹⁾ 사회주의자 애인
을 둔 주인공이 조직의 스파이를 알아내는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내용
의 이 작품에서 작가는 굳이 작품의 무대를 서울로 하고 소음이 많은
곳,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복잡한 곳이라고 묘사한다. <지맥>에서 주
인공이 아이들을 두고 타야 하는 “경성행 열차”는 “꺼먼 연기를 뿜으며”
들어오고 사람들이 “매우 분주하게들” 타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당시 작가가 바라보는 서울의 이미지는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화의 한편, 강점기 수도로서 여러 문제를 가
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서울의 장소성이 드러난다.

“너 서울 가는 거 안 좋아? 서울 가서 학교랑 댕깁 얼마나 좋을텐데
그래.”

“서울 가면 보통학교 가나…… 엄마 참말이가” (<지맥>, 38쪽)

26) <정당한 스파이>,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년 10월 01일. 이 글에서 작품의
인용은 되도록 원문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였고 구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책을
사용하였다. 표기법 등 통일성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27) <지맥>, 최정희·지하련, 『도정』, (주)현대문학, 2011.

28) 30년대 기자였던 최정희 습작들은 저널리즘의 폐해, 경박성, 시류를 따른 관념
적 제재, 기사적 보고문학 수준이라 평가된다.(서정자, 앞의 글, 97쪽)

29) '경성'이나 '서울'은 수도를 일컫는 일반명사이다. 다만 '서울'이라는 말이 신라시
대부터 쓰여 온 반면, '경성'은 일제 강점기에 명명된 것이다. 작가 최정희의 의
도적인 '서울' 표기를 강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볼 수도 있다. '-행'으로 열차를
표현할 때 '경성행'이라고 쓰는 것은 당시 굳어진 표현을 따르는 예외적 표기로
보인다.

나는 이내 그가 사흘 전에 서울서 결혼예식을 지내고 혜봉의 친정으로 신혼여행 겸 다니러 온 혜봉의 신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맥>, 201쪽)³⁰⁾

내 꼴이 점점 안되어 감을 걱정하더니 서울 친정에 얼마간 가 있으라고 어느날은 말했습니다. 나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인맥>, 206쪽)

「참 세월이 망하더니 별일이 다 있구나. 내가 그래 집안 망신시키구, 부모 망신시키려고 서울 왔니? 인제 서울서두 못 살게 만들려느냐. 자식이 아니라 다들 원수구나 원수」 (<인맥>, 211쪽)

「그럼 서울이구나.」

「그래, 서울 아저씨가 우리 응아랑 엄마랑 아버지랑 다 잘 있느냐고 편지했어.」 (...) 「서울이 하늘만큼 머여?」 (...) 「거기 가 봤음.」 (<인맥>, 222쪽)

최정희 소설에서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은 ‘먼 곳’의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동경의 장소, 추억의 장소로 설정된다. ‘서울’이 “하늘만큼 먼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물이 서울에 대하여 갖는 심정적 거리를 보여준다. 하지만, “보통학교”를 갈 수 있는 곳, 미지의 존재 “아저씨” 같은 존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한편 서울은 인물이 처녀 시절 살던 곳, 부모님이 사는 곳, 친구 혜봉이 사는 곳인 동시에 혜봉 신랑이라는 유혹의 상태가 있는 곳, 그에게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하고 영똥한 남자와 동거하는 장소로서 감상과 치기가 만연한 혼돈의 장으로 그려진다. 부모가 ‘나’로 인해 망신스러워 서울에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떠나기 싫은 곳’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구체적 장소 언급 없이 ‘서울’이라고 지칭될 경우 서울은 복합적이고 다소 막연하게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다.

2) 외부자로서의 시선 - 차가운 도시, 정착하고 싶은 곳

최정희 초기 작품을 통해 갖 상경한 비서울 출신 가난한 여성작가의

30) <인맥>, 최정희, 『최정희 선집』, 신한국문학전집 12, 어문각, 1975.

눈에 비친 서울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때 서울은 급변하는 곳, 차가운 도시로 그려진다. 동시에 정착하고 싶은 곳, 그러나 정착하기 어려운 곳이다.

겨울이 갓가온 가을날의 태양이 떠러질너고 한다. 건축 중에 잇는 T 관청 뚝흔 침탑에 반쯤 걸여잇는 태양이 셋빨갓케 되여서 한양 장안을 내려다본다. (...) 도시의 거리는 복잡하다. 회사에서 은행에서 관청에서 터져나오는 군중 근대 자본주의에 의하여 편성된 싸라리-맨- 돈 잇는 사람을 태운 자동차, 인력거, 전차, 빠쓰, 그리고 애인을 기다리는 모-던 꺄, 옛갓든 거리는 물꺄 듯이 뒤꺄었다.

이러케 뒤꺄는 그 속엔 또 한 계급의 인간들이 잠재하였스니 축 처진 억개에 지게 진 자유 노동자도 잇섯고 통행자를 귀찬케 하는 거지들도 잇섯다만은 그들의 존재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안었다. 해여진 옷을 걸치고 『돈 한 푼 줍시오,』하며 애걸하나 그들에게 동전 한 푼 더지는 자가 업섯다. 그들은 은행 철문 압히나 큰 상점 압 움푹에서 추운 밤이 닥쳐움을 근심하고 잇다. (<비정도시>, 60쪽)³¹⁾

인용 부분에서 작가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부른다. 거리 풍경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비판적이며 부정적이다. 서울 속 “싸라리-맨- 돈 잇는 사람을 태운 자동차, 인력거, 전차, 빠쓰, 그리고 애인을 기다리는 모-던 꺄”을 바라보는가 하면, 새로이 등장하고 잇는 계급 “지게 진 자유 노동자”와 “통행자를 귀찬케 하는 거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작가 최정희의 눈에 비친 당시 도시 서울은 ‘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아니었다. 빈과 부가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곳이고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가 대적하는, 급변의 공간이었다. 동반자 경향을 가진 작가 최정희는 서울 생활 초기에 이미 그런 강점기 서울의 모순을 통찰하고 이를 외부자적 시선을 통해 표현하고 잇는 것이다. 구한말 이전 명칭인 ‘한양’을 호출한 것에서 강점 하 서울 변화를 부정하려는 작가의 의

31) <비정도시>,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년 10월 01일.

도도 볼 수 있다.

최정희의 소설에서 서울 정착 소망은 빈번한 소재가 된다. 강점기 병폐를 구현하고 있는 강점기 수도 서울이지만, 작가는 그에 정착하고 싶은 소망이 강렬하였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

위선 집을 옮겼으면— 한 뜰 안에 여섯 살넘이나 버려노았으니 조용할 때가 잇슬리 업다— 게다가 한방에 일곱 여들 식구식이니 전녁 먹고 어린 것 재우고 겨우 틈을 만드려 책상에 안즈니 엽집 애들이 벽을 차는 등 서로 싸와 가지고 우는 등 야단이다. (...) 더구나 쓰기에 꺾치 안은 수필과 雜文인데 하로 밧비 다른 조용한 집에 살고 싶다. 이 살넘이 실낱 갓흐나마 내가 가지고 잇는 문학적 소질을 빼앗서 간다.<작가일기> 110쪽 : 밑줄-인용자³²⁾

여기에서 인물은 작가로서 글을 쓰기 좋은 환경으로서 ‘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바, 여성 소설 작가의 어려움인 ‘자기만의 방’이란, 글에 집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장소로서의 개인 공간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글이 쓰인 1933년경 최정희는 습작을 하면서 신문과 잡지 『삼천리』에 글을 쓰는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틈이라도 내어 책상에 앉아 “수필과 잡문”을 써야 하는 인물의 상황은 작가의 이야기기도 하다. 한편 여섯

32) <작가일기>, 『삼천리』 제5권 제4호, 1933년 04월 01일. 이 글에서 최정희는 “서로 차저다니며 文學이약이 하든 R作家 夫婦의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엇전지 기분이 우울해져서 나중엔 울고 씩”다고 하였다. 작가가 우울할 만한 이야기를 가진 R작가라면, 그 무렵 이혼한 나혜석일 수 있으나 나혜석과 최정희 교류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 글의 “더 미운 죽은 경(?)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부 일본말이다. 또 거기의 선생(?)도 일본 일을 갖고 일본옷 입고 일본사람 행세한다. 하나님도 조선사람인줄 알면 복을 안 주는지 그러타면 그러케 불공평한 하나님을 누가 밋을가.”와 같은 부분은 작가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가구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에서 당시 서울의 열악한 주택난이 엿보인다. 1930년대 서울은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땅을 잃은 농민들까지 서울로 몰려들어 인구가 급격히 밀집되고 있었고 서울 거류 일본인들만을 고려한 식민 당국의 개발로 인해 조선 서민들 주택 사정은 형편없었다. 그럼에도 인물이 서울에 정착하고자 하였던 이유는 이곳이 “가지고 잇는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사’ 문제는 이후 다른 작품에서도 지속된다.

별써 육칠년을 두고 지내 본 일이지만, 삼사 원짜리 방 한 칸을 얻자 해도 보증금이니 선세니 해 가지고 사오십 원너머의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그 집은 방 셋에 부엌 있고 마루 있고 뜰이 넓고 또 그 위에 경치가 좋고 한데, 보증금도 없고 선세 여러 달치 내라는 말도 없이 직업도 식구도 묻지 않고 (...) 정동 집에서 우리 집 식구가 끝끝내 집달리와 변호사와 순사에게 그 집에 살던 백여 명 식구와 함께 쫓기던 날, 비지발 없이 마당에 동맹이쳐 내던지운 세간 등숙을 건어 신고 자하문 밖이는 이의 친구 집 건넌방을 빌려 임시로 옮기게 된 지도 한 달이 (...) (<홍가>, 306쪽)³³⁾

통 모르시고 집을 얻으셨습니까. 하긴 집터가 세터래두 집 다스리기 루 간다군 합니다만..... 이집 바깥 권은 사십 미만에 그만 죽었읍쥬 또 그 안권은 미쳤읍쥬. 그러다가 나니 이집을 동네서 죄다 홍가라 이르고 누가 드는 사람 하나 없이 이태 동안이나 비어 두지 않았습니까 (<홍가>, 308쪽)

「이만하면 고향 손님이 와도 부끄럽잖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엄마 왜 우리는 밤낮 이사만 해..... 우리 지금 가는 집은 하늘 끝에 있어?」 하고 정동 집에서 떠나던 날 다 저문 자하문턱을 넘을 때 자하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넘어다보며 울 듯 겁나는 듯한 얼굴로 아이가 내게 묻던 말도 기억에 있기는 하나 (<홍가>, 312쪽)

작가인 인물이 돈을 벌 수 있는 서울은 정착해야만 하는 곳이었고 정

33) <홍가>, 최정희, 『녹색의 문 외』, 삼성출판사, 1982.

착을 위해 집을 구하는 문제는 중요했다. 인물은 “방 셋에 부엌 있고 마루 있고 뜰이 넓고 또 그 위에 경치가 좋고” 등의 좋은 조건 앞에서 “보증금도 없고 선세 여러 달치 내라는 말도 없이 직업도 식구도 묻지 않고 그저 수월히 내어주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은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동 집”에서 “집달리와 변호사와 순사에게 그 집에 살던 백여 명 식구와 함께 쫓기”어 났던 주인공에게 있어 서울은 “바깥 권은 사십 미만에 그만 죽”고 “안권은 미쳤”던 집이라는 악조건을 무릅쓰고라도 정착해야 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인물이 100여 명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큰 집의 소유자가 갑자기 재산권을 잃은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강점기는 조선인의 재산권상 큰 변동기였고 세입자들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채 쫓겨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인물이 거리로 내쫓긴 것은 조선의 서민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인물은 이런 일련의 일을 겪고 급히 정착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후 주인공에게 닥치는 병과 악몽으로 인해 ‘흉가’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 인물에게 있어 서울 정착을 위해 집을 구하는 문제는 지속적 고민거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구하는 문제는 ‘돈’이라는 경제적, 근대적 계산을 전제한다. 돈 문제를 전면화하고 삶의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작가의 현실적인 작품 경향을 잘 대표한다. 작가는 생활인이었다. 1930년대 작가는 아들을 기르는 싱글맘이었고³⁴⁾ 가정을 버린 아버지 대신 4남매 장녀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다. 그런 그녀의 상황처럼, 인물이 서울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 리얼하게 그려진 것이 <흉가>이다.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을 실질적 데뷔작이라고 할 만큼 애정을 갖는 것도 최정희 소설 창작의 지향점이 리얼리즘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리얼리즘은 공간의 구체적 재현이 전제된다.

34) 최정희는 1934년 제2차 카프 검거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김유영과 헤어졌고 1930년대 말까지 독신으로 아이를 길렀다.

집은 성화여학교와 부용이 집 가까운 데 하느라고 수송정에 얻었다. 나는 살림을 장만하고 아이들과 하순을 데려 오고 하느라고 한 보름 동안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상훈이도 만나지 못하고 부용이와 조용히 이야기할 사이도 통 없었다. (<지맥>, 65쪽)

<홍가>에서 '이사'를 위해 우선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지맥>에서는 "가까운 데", 근접성으로 대체된다. 주인공이 '수송정'에 집을 얻는 것은 그녀의 직장인 부용이의 집 '낙원정'과 가깝기 때문이다.³⁵⁾

3) 거주자로서의 시선 - 구체적 삶의 장소로서의 서울

최정희 작품에서 거주자로서 구체적 삶의 장소인 서울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이혼, 재혼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에서이다. 서울에서 인물들은 재혼 문제로 속을 끓이거나 홀몸으로 생계를 이으며 힘들게 살아간다. 이때 작품 속에서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써 묘사되는 '살림'이 주목을 요한다.

마침 일요일이고 또 신문사에 별일도 없고 해서 사에는 잠깐만 들렀다가 아이가 늘 가고 싶다는 동물원엘 갔다.(<정적기>, 53쪽)³⁶⁾

바위에 안졌으나, 아이가 있을 때처럼, 소설을 생각하고 또 남모를 다른 생각에 즐겁지 못하고 행여 우리 애기 도라오는가 자하문 턱마루 길을 바라만 보았다. 한적한 산길이라 그런지 그런 아이들 오고가는 양은 보이지 않고 자하문이 푸른 빛과 함께 어렴풋이 눈물속에 새물거려 질 뿐이고 즐겁든 산은 내게 아모 흥미가 없었다. (<정적기>, 57쪽)

그는 내가 동경 들어가는 것을 극력 말리곤, 곧 나와 돈의정 자기 하

35) 강점 초기 경기도 고시로서 경성부의 동이나 정외 명칭과 구역을 공포하면서 일제강점기 지명의 틀을 완성하였는데, 종로 일대는 종래대로 '동'으로 하고,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산 일대나 용산 일대를 '정'으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동'보다 '정'이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동'으로 쓰고 있으며 몇 작가들은 혼용하고 있다.

36) <정적기>, 『삼천리문학』 제1집, 1938년 01월 01일.

숙방에 작은 살림을 시작하자고 했다. (...) 그러기에 남편이 그 아내와 정면 해결을 하고자 서울의 우리 작은 살림을 대구로 옮기자고 할 때에 나는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꺼리고 하는 그의 아내가 있는 대구로 간다고 했고 (<지맥>, 34쪽)

살림이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로서, 자기 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할하는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과 관련한 문제 전반을 말한다. 인용 부분에서 인물들은 아이를 기르고 살림을 차리기도 하면서 서울 거주자로서 구체적 삶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문사를 다니는 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고 있다. 직장을 다니며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는 서울 거주자의 삶의 양태를 볼 수 있다. 당시 최정희는 조선일보 기자였으니 자전적인 이 작품에서 “잠간만 들”르는 곳은 조선일보사가 있는 현 세종로, 그 다음 가는 “동물원”은 당시 ‘동물원’으로 불렸던 창경궁임을 알 수 있다. 장소감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이다. 아이를 기다리는 “자하문 턱마루스길”에서 주인공은 “자하문이 푸른 빛과 함께 어렴풋이 눈물속에 새물거려질 뿐이고 즐겁든 산은 내게 아모 흥미가 없”(57쪽)다고 이야기된다. 평소에 즐거웠던 공간인 산이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니 인물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하문 턱마루스길’은 시내 쪽에서 올지 모르는, 그러나 오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마중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리움이 표상되는 장소이다.³⁷⁾ 대구로 옮겨 가는 회상 장면에서, 남편의 아내가 있는 대구는 “무서워하고 꺼리고 하는” 곳인 반면, 서울은 마음 편하게 있던 곳, 사랑의 공간이라는 장소감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 와서도 한 보름 동안은 마음의 건전을 무한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끝내 혜봉의 집을 찾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혜봉의 집은 신당정이었

37) 여기에서 인물이 즐겁게 오르던 ‘산’은 북악산 자락이고 ‘자하문 턱마루스길’은 현재 ‘자하문 고개’로서 종로구 청운동에서 부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읍니다. 자그마한 새 집 한 채를 장만했노라고 혜봉이가 몇 달 전에 내게 기뻐서 편지하던 바로 그 집이었읍니다.(〈인맥〉, 207쪽)

남편이 세상 떠난 후 곳 아현정 집에서 명운정 이 노파의 집 문간방을 동무의 알선으로 이사하게 된 후 노파는 이태동안을 늘 한결같이 자기의 지난날을 생각함에선지 다른 뜰아래방이나 건너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연이를 생각해 주었다. (...) 연이의 여섯살 난 아이를 꼭 자기의 손자처럼 보아주곤 하는 것이었다. (〈천맥〉, 283-284쪽)³⁸⁾

집과 한테 통한 병원은 낙원정 큰길계 번듯이 나 앉았다. 간판도 큼직하고 건물도 거대하고, 또 환자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의사가 파리만 날리고 앉았는 시대에도 이 병원은 흥성했다.(〈천맥〉, 286쪽)

〈인맥〉의 서울은 혜봉이 살고 있는 '신당정', 부모가 거주하는 '가회정' 등을 의미한다. 주인공이 혜봉의 집을 찾아가는 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대한 특정 장소감 때문이다. 신당동 혜봉의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짝사랑 대상이 살고 있는, 신비하고 어려운 장소인 것이다. 〈천맥〉에서 아현동이 남편과 살았던 곳, 과거형의 공간으로 기술되는가 하면 명륜동은 현재 세를 얻어 사는 곳이다. 명륜동의 셋집은 한 집안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주인 노파의 배려로 인해 비교적 긍정적인 장소감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인공이 재가한 이후 낙원동으로 거주 공간이 옮겨진다. 병원을 겸하는 “번듯”한 허진영의 건물이 있는 것이 ‘락원정’이다. “의사가 파리만 날리고 앉았는 시대”지만 낙원동 허진영의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고 “흥성”하다. 이는 1930년대 낙원동이 북촌 다른 곳에 비해 카페, 다방들이 있는 변화한 공간이었다는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³⁹⁾ 〈지맥〉의 부용이의 집도 낙원동이다. 주

38) 〈천맥〉, 『삼천리』 제13권 제1호, 1941년 01월 01일.

39) 낙원정(낙원동)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종각 뒤, 그들이 가끔 드나드는 술집을 찾았을 때, (...) 그들이 마침내 낙원정으로, 그 계집 있는 카페를 찾았을 때”에서와 같이 변화한 거리로 묘사된다. 낙원동 가까이 종로 2가에는 북촌 대표적 카페 ‘엔젤’이라든가 ‘백령’ 등이 있었고 공평동이나 관철동에도 카페들이 있어. 낙원동은 북촌의 중심가로 여겨진 듯하다.

인공에게 맡겨진 인물 하순이 다니는 성화여학교 역시 근처이다. 이상으로 당시 낙원동은 카페, 병원 외에 기생집과 학교까지 있는 변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대의 장소성을 작가는 이해하고 작품 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장미의 집>에서도 거주자 시선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서재를 겸한 이집 중에서 가장 넓은 응접실과 그들의 침실과 또 그외에 별로 적지 않은 방이 둘이 있고 부엌이 있고, 건물에 비해서 마당이 좀 넓었다. (...) 자기가 생각한대로 요리가 되어지는 때, 성례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뻐다. 비단 요리에 있어서뿐 아니라, 살림전체가 있어서 그러했다. 그러기 때문에, 성례는 하로중일, 행주치마를 벗지못하고 분주히 지내는 날에도 고된 줄도 모르고 추운줄도 몰랐다.<장미의 집>, 147-148쪽⁴⁰⁾

이 문화촌이란 이 동네가 이름이 문화촌이지. 속엔 똥이 들어차네. 다 그러단 건 아니지만, 태반은 회칠한 무덤이야. 마당에 화초를 심은 문화주택에서 하인을 부리며, 잘 먹구 잘 쓰구 손에 물 한 방울 안무쳐가며, 백화점으루 미용원으로 영화관으루 싸다니기만하면 문환가. 책 한 자 신문 한 줄 안보구두 문화주택에서 살면 문환가. (<장미의 집>, 154쪽)

집의 구조까지 이야기하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집안 살림에 몰두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하여 “고된 줄도 모르고 추운줄도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다음 부분에서, 남편의 친구는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고 성례와 같은 최소한의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제에 찬동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이른바 친일소설인 이 작품에서 “쓸데없이 마당이 넓”을 정도라든가 하는 화려함으로 묘사되는 “장미의 집”은 구체적 장소감 같은 장소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주목을 요한다. 강점기 기획도시 ‘문화촌’은 “똥이 들어차” 있는 공간이라 이야기된다.⁴¹⁾ 이것은

40) <장미의 집>, 『대동야』 제14권 제5호, 1942년 07월 01일.

41) 최근의 서울 ‘문화촌’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1950년대 말 박희목 등 시인, 예술가들이 모여 살면서 지어진 이름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작가의 이율배반을 보이는 부분이다. 작가는 현실 추수의 경향상 친일소설을 쓰면서 '장미의 집'이라는 장소를 설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1930년대 조선인 생활공간으로 일반화될 수 없었다. 작가가 아는 곳도, 긍정 하는 공간도 아니다. 다만 <천맥>에서와 같은 집안 살림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울 거주자의 삶을 보일 뿐이다. 거주자 시점에서 보이는 서울에서의 '살림'은 이전 세대 여성 작가들과 최정희 작품을 구별하게 만드는 점 중 하나가 된다.

4) 집 밖의 거리 관찰 - 동선 혹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표현

최정희는 집 밖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가이다. 그녀의 작중인물들은 서울을 관찰하고 서울 여기저기를 활보하고 있다. 이동 경로의 묘사나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용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더하고 작중 인물들의 생활인으로서 면모를 강조하게 된다. 작품 중 서울 지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푸른 지평의 쌍곡>⁴²⁾에서부터 집 밖의 거리가 묘사된다. 지배인의 아들 정수가 데이트를 신청하면서 “래일 문 바끄로 나가”자며 “장충단 공원 련못가”에서 만나기로 함으로써 이들의 현 공간이 ‘문안’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주인공 옥희는 거리, 지금의 층무로인 “혼마사지”에서 “귀여운 옥희씨를 자조 맞나는 사나회” K로부터 연애편지를 받기도 한

다. 이 글의 ‘문화촌’은 그곳이 아니라 1920년대 일제가 새로운 주택들을 지어 그렇게 불렀던 동소문 안의 지역을 가리키는 듯하다. 당시 서울은 문화촌 외에 빈민촌(수구문 밖 신당동), 서양인촌(정동), 공업촌(용산), 노동촌(경성역 봉래교), 기생촌(다우정, 청진동, 관철동, 인사동 일대) 등의 특수촌이 형성되면서 지역별 장소성이 형성되었었다(신현규, 『기생 이야기』, 살림출판사, 2007, 79쪽).

42)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년 05월 15일, 40-42쪽. “봄빛은 넘치게 흐른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사회주의적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노동자 계층 여성으로 의식을 갖춘 주인공이 “해정한 미남자형에 또 거기다가 돈 있는 지배인의 아들” 정수와 감상적인 만남 경험을 한다는 짧은 이야기이다. 옥희 등에게 서울이 투쟁과 운동의 거리인 반면, 정수 등 부르주아에게 서울은 유흥과 감상의 거리였다.

다. 여기에서 서울 거리는 이성과의 데이트 공간, 편지를 받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은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장소, 산책의 장소로서 구체적인 동선과 함께 그려진다.⁴³⁾

서울 하늘도 흐리고 서울에도 서글프게 눈이 퍼부었다. 나는 역 앞에서 인력거 한 대를 잡아타고 낙원정 XX번지 김연화의 집을 찾기로 했다.(<지맥>, 42쪽)

영애어머니의 뒤를 따라 저물은 저녁 길을 걸어 청진정 그 집애를 갔다.(<지맥>, 49쪽)

해 저물녘 길을 미끄러지며 찾아낸 명치정 구십팔 번지는 ‘고마도리’라는 찻집이었다. 인접한 편지에 다방을 한다는 이야긴 없었지만 명치정 거리란 데가 다방 거리고 또 그가 함직한 일인 것 같기도 하기에 나는 ‘고마도리’라는 다방 앞에서 얼마 망설이지 않고 홀에 들어갔다.(<지맥>, 56쪽)

미친 사람이라 할 만치 그만큼 당황했다. 당황했다기보다 즐거워했다. (...) 북악산 근처의 푸른 경치도 나를 위해 있는 것 같고 태양이, 푸른 숲이, 아니 온 우주가 전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다. (...) 거리는, 더구나 다방 거리인 명치정 길은 낮과 같이 밝고 사람들이 오고가고 와글와글 끓었다. 나는 그 길을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인 듯한—하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상봉을 하게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고마도리’ 이층, 상훈의 방문을 노크했다. (<지맥>, 73-74쪽)

하순은 로버-트·테일러와 같다는 남자와 알게 된 지 한 스무날밖에 안 된다는 거며, 처음에 알기는 동홍백화점에 향수 사러 갔다가 비로소 피차에 좋아지게 되어 (...) 그 백화점에 가서 바로 그 로버-트·테일러와 같은 사람이 팔고 있는 화장품부의 물건—크림, 분, 그 외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거개를 샀다는 거며 (<지맥>, 58쪽)

43) <지맥>을 보면, “나는 흔들리는 인력거 안에 작게 뚫린 팬한 구멍으로 나를 열 아홉까지 곱게 길러준 고향의 거리를 살피며”(42쪽)라는 대목이 있다. 작가의 관찰자로서의 면모가 잘 보이는 부분이다.

인물들은 사람을 찾아 낙원동, 청진동, 명동을 배회하고 있다. 이때 장소감이 같이 표현된다. 처음 도착한 서울에 내리는 눈은 “서글프게” 묘사되고 모르는 이 뒤를 따라 가는 길은 “저물은 저녁길”로 어둡게 묘사된다. 주인공이 상훈을 방문하던 두 번 모두 그가 있는 곳, 명치정이 다방 거리임을 강조한다. 주인공은 주소만 보고도 그곳이 다방 거리임을 아는데, 이것이 당시 그곳의 장소성이다.⁴⁴⁾ 당시 그곳은 밤이지만 “낮과 같이 밝고 사람들이 오고가고 와글와글 끓”을 정도로 상권이 모인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여주인공이 상훈을 재차 찾아가는 장면에서 나타난 장소감은 ‘행복’이다. “슬픈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인물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주인공이 상훈에 대하여 가지는 심경을 미뤄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⁴⁵⁾ 다음 부분에서는 동홍백화점을 드나드는 인물 이야기가 나오면서⁴⁶⁾, 당시 젊은 여인들이 드나들었다는 서울의 백화점이 갖는 장소성도 드러난다.

골목길을 나오자 야시는 한창 흥정이 벌어진 듯 뒤범석 야단이었습니

44) 신현규, 앞의 책, 39쪽. 중구 ‘다동’이 ‘다방 거리’, ‘다방골’로 불리는 것은 조선시대 이곳에 다례 주관처가 있었기 때문인데, 강점기에 다방이 많이 자리하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경인문화사, 2009, 156쪽). 행정동으로는 명동을 말한다. 작품 속 ‘상훈’은 작가 이상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주인공이 찾아가는 남성 주인공 상훈이 ‘고마도리’(물새)라는 이름의 다방을 하고 있다. 1935년에 이상이 개업한 카페 이름 ‘쓰루(학)’와 연관성 있어 보인다.(이상의 소설 <중생기>의 바람둥이 여성 인물의 이름이 ‘정희’라는 것과 두 사람 사이를 뒷받침하는 이상의 편지도 발견(『뉴시스』 2014-07-23. <http://www.newsis.com/>)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45) 여기에서 ‘슬픈 이야기’는 <안나 카레니나>로 보인다. 다른 판본에서는 이 부분이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와 그의 연인의 재회 장면과 오버랩되기도 한다. 명동 거리에 대한 인물의 장소감은 안나 카레니나가 브론스키를 만나는 모스크바 기차역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46) 당시 서울에 ‘동홍백화점’이라는 곳은 없었다.(서울 근대공간 디지털 콘텐츠, 백화점 전성시대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 최남이 세웠던 동아백화점이나 대동홍업과 연관된 화신백화점 정도를 염두에 둔 듯 보인다.

다. 전차에 오르면 떨어지리라 했던 김동호는 내 타는 차에 먼저 부득부득 올라타입니다. (<인맥>, 209쪽)

나는 전차가 종로에 와 닿은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바꿔 타야잖아요? 맥이 가회동이라시니……」 (…)

「친정맥이 가회정 사신단 걸 허윤 부인한테 듣구 언제 한/번 서울 오시리라 기다리구 있었죠.」 (…)

앞에 길게 출렁대는 내 그림자를 밟으며 신당정에서 가회정까지 걸었습니다. (<인맥>, 209-210쪽)

1930년대 거리 풍경이 그려진다. 신당동에서 전차를 타려면 동대문 쪽으로 와야 했으니 “골목길을 나”은 이들이 본 “야시”는 동대문 야시장 정도로 보인다. 당시에 이 자리에 야시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차를 이용할 줄 아는 현대인의 삶이다. 동대문 정도에서 출발하여 가회동에 가는 인물이 전차를 갈아타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구체적이다.⁴⁷⁾ 그 다음 장면은 이후 주인공 선영이 허윤상을 재차 찾아갔다가 혜봉 부부의 행복을 확인한 이후 행적이다. 선영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리는 앞에서 전차를 갈아타면서 귀가한 바 있는 4-5킬로미터 거리의 길이다. 이를 통해 인물의 복잡한 심경이 외면화되고 있다.

47) 1898년 2월 19일 한성전기회사 설립된 다음해 1899년 서울에서 처음 전차가 운행되었다. 서대문-청량리 간 단선(1898), 종로-남대문 간 단선(1899) 신설로 개통식을 한 이래 1920년대부터는 전차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아 1968년까지 주요 운행수단이었다. 여러 차례 신설과 확장을 거쳐 1930년대에는 ①본선:청량리-동대문-세종로 ②서대문, 마포선:세종로-서대문-마포 ③을지로선:을지로 6가-을지로입구-남대문 ④효자동선:효자동-세종로 ⑤왕십리선:을지로6가-왕십리 ⑥신용산, 구용산선:남대문-남영동-신용산, 남영동-원효로 ⑦노량진, 영등포선:신용산-노량진-영등포 ⑧의주로선:남대문로5가-서대문-영천 ⑨창경원, 돈암동선:종로4가-창경원-돈암동 ⑩종로4가-을지로4가 ⑪동대문-을지로6가 등으로 확대되었다.(<https://ko.wikipedia.org/wiki/>) 신당동에서 가회동까지 가려면 을지로 6가 정도에서 갈아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학원에 집어넣었던, 형주 설주를 데리고, 다짜고짜로 남산정 있는 성모학교에 간 것이었다. (<지맥>, 71쪽)

연이는 아이학교에도 명윤정 노파집에도, 들리지 않기로 하고 아이의 손목을 꼭 잡은 채, 파고다공원 정류장에서 동대문행 전차를 타 버렸다. 정류장에 이르러서까지 어쩔까 어쩔까하고 망서린 것이나 아이학교나 명윤정 노파집에 들리는 일은 꼭 불결한 - 혹은 무서운 것이 튀어 나올 듯한 곳을 뒤지는 것과 같아서 싫었다.

연이네 모자는 전차와 빠쓰를 거쳐, 무학대(舞鶴臺)에서 도보로 길이 뽕-하니 뚫인 고개 둘을 넘어, 언덕길에 이르렀다. (<천맥>, 287쪽)

<지맥>의 은영이 아이들을 성모학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혼돈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녀가 서울 지리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⁸⁾ 다음 부분은 <천맥>에서, 허진영의 집을 나온 연이가 아들과 함께 고아원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 장면에서 연이가 명륜동을 향해 '무섭다', '싫다'는 장소감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 그 집에 살 때 긍정적인었던 장소감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허진영과 헤어지면서 재혼을 주선한 명륜동 노파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뀐 탓에 명륜동에 대한 장소감도 바뀐 것이다. 그녀는 낙원동에서 옥수동으로 가기 위해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 즉 종로 2가 정류장에서 전차를 타고 동대문 쪽으로 간 뒤 다른 전차나 버스로 갈아타고 있다. 본선을 타고 버스나 전차를 갈아타고도 고개 둘이나 넘어야 옥수동에 도착하는 노정을 보여준다.⁴⁹⁾ 종로통 교통이 편리했던 반면, 외곽으로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은 강점기 교통상황도 엿볼 수 있다.

오후 다섯시에 청목당에서 만나지는, 내 편지보다 더 짧은 원고용지 한 장 한 가운데 꼭 한 줄만 쓴 편지였습니다. (...) 꼭 사람 죽은 집 같

48) 당시 남산에 '성모학원'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남산 쪽 큰 성당(명동성당 등)을 이야기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49) 한편 여기에서 '무학대'는 작가의 실수거나 오기로 보인다. 서울에는 '무학대'가 아니라 '무악재'가 있지만, 옥수동과 무관해 보인다.

은 그 경황 없는 집을 빠져나와 그이가 오후 다섯시에 만나자는 청목당을 미리 찾아놓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청목당이 어디 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이가 어떤 데서 나를 만나주려는가 부디 그 청목당이라는 데가 조용한 곳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 청목당을 나와 그이는 앞을 서서 삼중정 백화점 옆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 그 길을 한참 걸어 남산 밑 산길이 되면서는 두서너 개의 산보객이 있을 뿐 무척 한적했습니다. (...) 그이와 나란히 으슬막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는 사이에 나는 세상의 온갖 것을 혼자 정복한 듯한 우월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사랑의 호소와 신의 비밀같이 혼자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맥>, 213-214쪽)

허윤상이 만나자고 한 곳은 ‘청목당’인데⁵⁰⁾ 선영은 그곳을 미리 찾아둔다. 인간관계에 있어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골목 거리를 산책하는 동선을 따라 당시 서울 거리의 구체적 묘사와 함께 인물이 갖는 다양한 장소감이 보인다.

3. 결론 : 소설 속 서울 공간의 활용과 그 의미

최정희 초기 소설에 나타난 1930-40년대 서울은 대부분 ‘그립다’, ‘있고 싶다’, ‘생활하는 곳’ 등의 장소감을 보이면서 서울 공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습작에서나 과거 회상 장면에서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은 불안하고 복잡

50) 당시 일본인이 경영한 레스토랑 ‘청목당’은 1902년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이 지은 ‘손탁호텔’과 강점 직후 일본인들에 의해 명동의 진고개에 지어진 ‘깃사텐’과 함께 당시 중요 음식점 중 하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본정 45번지에 있던 삼중정 백화점 근처 남대문로 조선은행 광장에 면해 있어 1-2킬로미터 정도만 걸어도 “남산 밑 산길”에 다다르게 되어 한적한 산길을 걸어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게 되는 장소였으며 1층에서 양주, 2층에서 차와 식사를 팔았다.(<http://www.culturecontent.com/search/search.jsp>).

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곧 멀지만 가고 싶은 곳, 여러 가지가 가능한 곳, 그리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시선이 멀리 있다 보니 다소간 피상적인 경향도 볼 수 있다. 둘째, 외부자로서의 시선이 그려지는 작품들에서 서울은 다양성이 포착되고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그려진다. 빈부의 격차 등 산업화의 모순을 보이는 서울이지만, 여러 작품에서 빈번한 이사 모티프를 통해 작가가 보이는 것은 정착에의 욕망이다. 셋째, 거주자로서 인물을 통해 작가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사용하며 여러 감정의 장소로 그린다. 그것은 획일적인 '무섭다, 낯설다'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의 구석구석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장소의 고유 장소감 포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30년 서울의 사회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산책이나 이동의 공간으로서의 구체적 서울 거리나 교통수단의 이용을 통해 적극적인 서울 공간 활용상을 보인다. 이때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즐겁고 우월감의 장소로써 그려지기도 한다. 이상은 여러 작품에 혼재되어 나타난다.

일제 강점기 경성은 이른바 '성저십리' 중심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이 있었지만 이전 세대 여성 작가들뿐 아니라 박태원, 염상섭 같은 작가들도 종로구, 중구를 무대로 서울의 공간 스토리텔링 양상을 보였다. 최정희 역시 종로구 중구로 국한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는 자신이 잘 아는 곳을 배경으로 한다는 리얼리스트로서의 특성 때문이다. 공간 스토리텔링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근대기 이후 여성 작가들은 서울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여성 문인에게 내려진 성적 차별과 상징폭력 속에서 여성 작가, 특별히 비서울 출신 여성 작가에게 서울은 특별한 장소감을 주었으리라 추측된다. 김명순이나 나혜석 등 이른바 1세대 여성작가들의 소설 속 서울이 생활하는 곳, 거주지로서의 장소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안정적인 휴식처로서의 묘사보다는 낯선 곳, 무서운

곳, 어두운 곳이라는 인상이 주도적이었다. 이에 비해 최정희의 작품에서는 구체적 삶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장소성은 전 세대 여성 작가들보다 구체적이고 주체적이다. 신당동과 자하문, 청량리역 등 지역을 넓혀 움직이는 인물을 통해 자세하게 관찰하며 장소감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장소에 대한 다양한 감정도 뚜렷하다. 고백을 받고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라든가 남산에 올라서 서울을 내려다 볼 때 등 구체적 장소감은 작가가 서울이라는 공간을 심분 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최정희 작품에서 서울 공간의 적극적 활용이 비교적 가능하였던 이유에 관해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최정희의 사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잠시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고 전향 이후까지 사상의 기본을 유지하였음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특성상 최정희는 개인적 차원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강점기 서울의 명칭은 ‘경성’이었지만 최정희는 유독 ‘서울’ 혹은 ‘한양’이라고 호칭하였다. <작가일기>에서 보인 바 있는 민족 주체성 등 균형적인 시각의 견지 역시 사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 최정희가 가진 직업과도 연관이 있다. 자유업인 시인, 화가, 소설가였던 1세대 여성 작가들과 달리 최정희는 샐러리맨 생활을 시작했다. 보육교사를 거쳐 신문기자가 된 뒤 그녀는 일선에서 사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했으며 예리하게 당대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최정희 작품 흐름 변화는 그녀가 읽은 시대정신과도 연관이 있다. 그런가 하면 최정희는 비교적 외국 체류 기간이 짧았고 서울에 오래 머물렀기에 서울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나혜석이 일본 유학뿐 아니라 외국을 두루 다닌 것과 김명순이 역시 두 차례 일본 유학 외에 프랑스 유학을 꿈꾸며 재도일하며 서울을 떠나려고만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로써 최정희가 서울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았을 것과 서울에의 적응이 보다 용이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정희의 생활 태도, 생활력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족적 차별 위에 성적 차별까지 가중되었던 당시는 여성이 독거로 살아가기 용이한 시대가 아니었다. 이혼으로 가정을 잃고 친정에서도 내쳐진 나혜석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나혜석이 결혼을 통해 잠시 세간의 스토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고아로서 결혼조차 하지 않은 김명순에게는 나혜석 정도의 여유조차 없었다. 이들에 비해 최정희는 “죽고 싶”은 마음을 잡아 가며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 ‘아들’과 ‘어머니’라는 부양가족을 책임지며 ‘살림’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한 글쓰기였다는 것도 최정희 문학 속 서울의 구체적 활용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보인다. 글을 쓰려면 많은 생각과 구체적인 관찰을 해야 했고 이것이 그의 문학 속 구체적 장소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10여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대 작가였던 1세대 여성 작가들과 최정희가 갈라지는 부분이라 보인다. 이 글은 최정희 초기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정희의 광복 이후 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스토리텔링의 양상은 지면 관계상 후일 작업으로 남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최정희의 작품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정당한 스파이>,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년 10월 01일.
<비정도시>,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년 10월 01일.
<작가일기>, 『삼천리』 제5권 제4호, 1933년 04월 01일.
<정적기>, 『삼천리문학』 제1집, 1938년 01월 01일.
<천맥>, 『삼천리』 제13권 제1호, 1941년 01월 01일.
<장미의 집>, 『대동아』 제14권 제5호, 1942년 07월 01일.
<인맥>, 최정희, 『최정희 선집』, 신한국문학전집12, 어문각, 1975.
<홍가>, 최정희, 『녹색의 문 외』, 삼성출판사, 1982.
<지맥>, 최정희·지하련, 『도정』, (주)현대문학, 2011.

2. 논문 및 단행본

- 김세익·최혜실, 「공간스토리텔링과 인문건축」,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15-52쪽.
김영순,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19, 인문콘텐츠학회, 2010, 35-59쪽.
박죽심, 『최정희 문학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10.
서정자, 「일제 강점기 한국 여류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심진경, 「‘모성’의 탄생—최정희의 <지맥>, <인맥>, <천맥>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415-435쪽.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현대소설연구』 26, 현대소설학회, 2005, 131-149쪽.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

- 획』 32(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77-181쪽.
- 정영자, 「최정희 소설 연구-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122, 문예운동사, 2014, 42-57쪽.
- 정현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19,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107-141쪽.
- 조미숙, 「강점기 여성 작가의 '서울' 스토리텔링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집, 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75-106쪽.
- 최정아, 「최정희의 <녹색의 문>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탐구 양상」, 『현대소설연구』 44, 현대소설학회, 2010, 435-461쪽.
- 황수남,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구원'의 양상」, 『한국문학논총』 27집, 한국문학학회, 2000, 325-344쪽.
- 김기혁 외 18인,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 신현규, 『기생 이야기』, 살림출판사, 2007.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논형,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Storytelling 'Seoul' in Choi Jeong-Hee's early novels

Jo, Mi-Sook*

Seoul is a place where scholars are constantly interested in the colonization of the colonial city of Gyeongseong, with its space and space continuity. The meaning of literary studies with the place of Seoul as a place of Japanese colonization has meaning such as the meaning of place memory, the strength of religion of the Korean people, and so on. Choi Jeong-Hee is a representative writer of Korean literature who deals with the family, life problems, contemplative life of the old age and the philosophy of death through the strength of Japanese rule and division. For Choi, Seoul was a special place. In this article, I tried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artist in Seoul through the aspect of Seoul Storytelling in Choi Jeong - Hee's early novels. Seoul has been a special place for non-Seoul female writers, in the context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symbolic violence against women. The impression of a strange place, a scary place, a dark place dominated rather than a stable and resting depiction. Seoul, which appeared in Choi's novels in the 1930s and 1940s,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female writers. First, Seoul is portrayed as a longing place. Second, Seoul is portrayed as a place where diversity is captured and settled. Third, it depicts a sense of

* Konkuk university.

place for every corner of Seoul. Fourth, it depicts specifically Seoul as a space for walking or moving. The placeness of Seoul in the Choi Jeong-Hee's early novels is more concrete and realistic than the previous female writers.

Key Words: Choi Jeong-hee, female writer, Seoul, storytelling, place, the Placeness

■ 논문접수 : 2018년 6월 15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7일

■ 게재확정 : 2018년 8월 17일

